

북러 경제관계의 현황과 전망

알렉산더 티모닌(Alexander Timonin) / 주한 러시아대사관 참사관

일부 전문가와 정치인들의 예측과는 반대로, 김일성의 사망에 따른 새로운 시대의 개막은 북한 정치체제와 대외경제전략에 있어서 아무런 가시적인 변화도 가져 오지 않았다. 기대했던 바와 같이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 김정일은 아직도 1993년 12월의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발표된 경제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이 정책의 주요 내용은 북한경제 구조의 제한적인 근대화라고 할 수 있다. 여러 경제적 문제들과 새로운 국제현실에 직면한 북한지도부는 농업, 경공업, 그리고 대외무역을 우선시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주체적인 경제근대화 방식을 찾아 나서게 되었다.

일부 관측가들 중에는 이 정책과 중국 사회의 근본적 경제개혁의 바탕이 된 소위 '4대 근대화정책'과의 유사성을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유사성은 단지 공식적이고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다. 실제적인 면에서 볼 때 현재 북한의 경제정책은 인민대중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경제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되, 공급의 중앙 관리 및 배분이라는 경직된 체제를 계속 유지해 보려는 시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

와 동시에 북한의 대외무역에 대한 관심 증대가 의미하는 바는 북한 지도부가 현재의 경제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국제무역과 경제협력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고려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불과하다.

북러 경제관계의 현황

지난 수년 동안의 북러 경제관계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지속되어 왔다. 냉전의 종식, 구소련의 와해, 러시아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그리고 러시아와 남한과의 외교관계 수립 등과 같은 요인들은 경제적 측면을 포함한 북러 관계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북러간 양자관계의 비정치화와 상호이윤 원칙의 채택으로 인해 과거 오랜 관행으로 자리 잡아왔던 북한에 대한 구소련의 선심성 기술 및 경제 원조 행위는 끝나게 되었다. 북한경제로서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북한과의 모든 거래에 있어서 경화 결제만을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1991년 러시아 정부 방침이었다.

북한의 외화 부족은 즉각적으로 북러간 무역

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1991년 이후 양국간 교역 규모는 급속도로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전문가의 추정에 의하면, 약 6억 달러에 이르렀던 북러간 무역은 1993년에 35%가 감소, 3억 9천만 달러에 머물렀다. 1994년에는 무역 규모는 1억 3천만 달러로 감소하였으며, 그 중 러시아의 대북 수출액은 1/3 (3억 1천만 달러에서 1억 1천 5백만 달러), 그리고 수입은 1/5 이상 (8천만 달러에서 천 5백만 달러) 줄어 들었다.

<표 1> 북러간 무역 규모

단위: 백만 달러

연 도	러시아 수출	러시아 수입	무역 규모
1992	400	200	600
1993	310	80	390
1994	115	15	130
1995 (1st quarter)	13.5	0.5	14

* 러시아 통계위원회의 발간 자료와 러시아 전문가의 추정치를 참조하여 작성

1994년 러시아가 북한에 수출한 주요 품목은 화학 비료(2천 6백 4십만 달러), 목재 제품(2천 3백 2십만 달러), 철금속(5백 5십만 달러), 자동차(5백 십만 달러), 석탄(2백 5십만 달러) 등이다. 중유 약간량(436톤)을 제외하고는 석유 및 다른 유제품은 전혀 수출되지 않았다.

1994년 북한의 대러시아 수출 품목으로는 기계 제품(2백 9십만 달러), 개인용 컴퓨터, 오디오 및 비디오 장비 등의 가전제품(주로 홍콩,

중국, 싱가포르, 일본에서 생산된 것들로서 5백 9십만 달러), 식품류(2백 2십만 달러) 등이 있었다. 북한이 자체 생산한 수출품 중에는 금속 절단 선반, 자동차용 배터리, 세멘트, 마그네사이트 클링커(용재괴), 비철금속, 채소, 경공업 상품 등이 포함되고 있다.

1995년 1/4분기에도 북러 교역의 감소 추세는 계속되었다. 1995년 1~3월 간의 교역액은 1천 4백만 달러로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천 4백만 달러에 훨씬 못 미쳤다. 러시아의 대북 수출은 전년 동기의 2천 5십만 달러에서 1천 3백 5십만 달러로 줄었다. 이 기간 동안 러시아가 북한에 주로 수출한 품목은 기계 및 장비(8백 5십만 달러), 철금속 (1백 2십만 달러), 목재 (2백 5십만 달러), 원면 (7십만 달러) 등이다. 같은 기간 동안 러시아의 수입은 5십만 달러로서, 전년 동기에 비해 1/6로 감소하였다. 주요 수입 품목은 기계 제품, 일용품, 채소·과일 등이었다. 러시아의 수입 감소는 거의 모든 품목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과거 북한의 전통적인 수출 품목이었던 마그네사이트 클링커(용재괴), 비철 금속, 비광물 원재료 등은 교역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북러 무역 감소의 원인

북러 무역의 감소는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다. 우선 러시아와 북한 양국에 존재하는 수많은 경제적 문제들(북한 정부의 지불 능력 부족, 새로운 상황에서의 협력을 위한

법적 기반의 미비, 양국 은행간 연계의 취약성 등)을 들 수 있다. 매우 높은 수준의 철도 운송 관세 또한 양국간 교역의 중대한 장애가 되었다. 러시아의 새로운 경제정책은 과거 북한이 경쟁성 없고 전통적인 물품을 러시아에 팔고 그 대신 광물, 원재료, 기계 장비 등을 유리한 조건에서 들여 오던 오랜 관행에 종지부를 찍었다.

경화의 부족 상태는 북러간 무역 관계의 본격적인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1990년대 들어 물물교환은 양국간 교역의 주요 형태가 되어, 북한의 대러시아 수출의 대부분과 러시아의 대북 수출의 약 50%가 경화의 지불없이 이루어 졌다. 러시아의 대북 수출액 중 약 25%가 북한 측의 노동력 제공으로 대신 지불되고 있는데, 이들 북한 노동자들은 대개 러시아의 하바로스크와 아무르 지역에서의 벌목일, 그리고 그밖에 광산사업이나 극동지역에서의 건설사업 등에 종사하고 있다. 러시아의 대북한 수출 중 약 25% 정도만 경화에 의해 지불되고 있는데, 소량의 자동차와 항공 장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최근 들어서는 북러간 교역 중의 상당 부분이 재수출과 재수입으로 구성되고 있다. 러시아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 (특히, 중국

과 일본)과의 교역에 있어서 북한은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북한의 이러한 노력이 그리 성공적이지는 못하다. 그래도 현재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석탄, 철금속, 비료, 자동차 등의 약 30% 정도를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에게 재수출하고

“
**러시아의 대북 수출의 약 50%가
 경화의 지불없이 이루어 졌다. 러시아의 대북
 수출액 중 약 25%가 북한 측의 노동력
 제공으로 대신 지불되고 있는데,
 이들 북한 노동자들은 대개 러시아의
 하바로스크와 아무르 지역에서의
 벌목일, 그리고 그밖에 광산사업이나
 극동지역에서의 건설사업
 등에 종사하고 있다.**
 ”

있다. 또한 북한의 대러시아 수출의 약 60% 정도가 제3국가에서 제조된 물품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로 일본의 가전제품, 중국의 식품류, 그리고 쿠바의 설탕 등이다.

양국간 교역에 있어서 또 다른 문제들의 발생 원인으로는 북한기업들의 비공정 관행으로서, 많은 북한기업들이 러시아측 파트너들에게 대한 책임을 수행하지 않고 있다. 1994년의 경우 러시아기업이 북한에 수출한 물품에 대한 미지불액은 2천 5백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

양국 경제관계에 있어서 가장 급박하고 복잡한 문제 중의 하나는 북한이 구소련, 그리고 현 러시아에 지고 있는 부채 문제이다. 현재 부채는 33억 루블(약 4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1993년 총상환액은 17억 5천만 루블에 달하였다. 북한의 대외무역부는 1992년 평양에서의 양국 수출 회담에서 곧 상환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확인하였으나, 실제로는 부채 상환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비록 북러간 관계에는 아직도 수많은 문제들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나, 양국간 관계의 가장 어려웠던 시기는 이제 지났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양국 관계 주변의 남아있는 갈등 요인들에도 불구하고, 대러시아 경제관계의 확대와 발전에 대한 북한측의 관심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 있었던 양국 고위 관료들의 회동에서 양측은 현재의 교역량 감소를 중지시키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경제협력을 모색하자는 데에 합의를 보았다. 러시아의 시베리아와 극동 지역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천연자원, 발전된 산업, 그리고 고도의 과학 기술적 잠재력 등은 항상 북한에게 매력적인 것이었다.

러시아의 기업인들도 북한의 현재 경제상황과 향후 보다 긴밀한 협력 전망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러시아 전문가들의 추정에 의하면, 북한은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을 뿐 아니라 편리한 항구 시설을 갖추고 있는 등 매우 유리한 지리적 위치에 있어 장기적으로 러시아의 매우 유망한 경제 협력자가 될 것이다. 북한의 지도부도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의 혜택을 이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때문에 북한 정부는 러시아 기업들과 시베리아와 극동 지역과의 경제유대 강화, 합작회사 건설, 나진-선봉자유경제지대 개발에의 러시아의 적극적 참여 유도 등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하게 된 것이다. 또한 양측은 경

제, 과학 및 기술 협력에 대한 정부간 자문위원회 활동을 재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에 합의하였다.

특히 북한이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분야는 자신의 값싸고 질 좋은 노동력을 이용하여 러시아의 사회적, 산업적 기반시설 건설에 참여하고 또 시베리아와 러시아 극동지역에서의 천연자원 및 광자원을 개발하는 것이다. 1993년의 경우 2만명에 달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이 지역의 벌목, 건설, 경작 등과 같은 일에 종사하였다.

러시아와 북한 양측 모두가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분야는 북한 노동자를 이용한 하바로스 크와 아무르 지역에서의 공동 벌목작업이다. 1993년 이 지역에서의 협력에 관한 양국간 합의가 완료되었으나, 긴 협의 끝에 1995년 2월 새로운 합의가 서명되어 앞으로도 계속된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새로운 합의문에서 한가지 유의할 점은 인권문제에 있어서 현재의 러시아 법률과 국제 기준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어업에 있어서 러시아와 북한간의 협력 또한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전망도 밝다. 최근 양측은 양국 경제지역 내에서의 어획량에 대한 1995년도 쿼타를 작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또한 러시아 어선의 북한내 항만에서의 수리를 위한 공동사업 추진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졌다.

북러 경제관계의 전망

북러 경제관계의 향후 발전 전망에 대한 진단을 내리기는 무척 어렵다. 왜냐하면, 양국관계의 많은 부분이 양국이 처하게 될 정치적, 경제적 상황, 그리고 양국 정부의 구체적 경제정책에 의해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북한내 구소련 (그리고 현러시아) 영사관에서 10년간 일해 오면서, 북한 경제의 가능성과 제약성에 대한 실질적인 지식을 갖게 되었다. 본인이 확신하는 한 가지 점은 북한의 향후 가장 유리하고 매력적인 경제파트너는 바로 러시아라는 사실이다.

우선 북한 경제의 기초는, 비록 중국 등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 부분적 참여도 있기는 했지만, 주로 구소련에 의해 건설되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양국간 경제협력의 가장 활발하던 50~70년대의 기간 동안, 러시아 전문가들의 도움과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급속 체련 (김책 체련소), 석유화학 (선봉과 웅기), 에너지, 자동차, 섬유, 광업, 식품 등의 산업에 걸쳐 70여개의 대규모 공장이 건설되었다. 현재에도 북한 전체 산업 생산량의 약 70%가 과거 소련에 의해 세워진 기업이나 공장들에 의해 생산되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감에 따

라, 대부분의 공장들에 대한 재건축 및 보수 공사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이를 위한 러시아로부터의 장비 도입 또한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보상에 기초한 북러간 경제 교류의 재개 또한 기대되고 있다. 구소련에 의해 건설된 북한내 약 10개의 현대적 산업시설 등은 건설 당시 생산품의 대부분을 소련에 수출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었다. 이들 공장의 본격적인 생산 가동은 러시아측의 부품과 원자재 조달없이 불가능하다.

북한은 1987~89년 러시아의 Nizhny Nov-

“

북러협력에 있어서 있어서 앞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분야는 북한 항구들(특히 구소련의 지원으로 건설된 나진항)을 경유한 러시아 수출입품의 유통 문제이다. 일부 러시아 기업들은 이미 이러한 사업에 착수하여, 1992~93년 나진항의 개발에 5백만 달러를 투자하였다.

”

gorod와 북한의 희천에 공동투자자로 건설된 현대적 금속절단 선반의 생산 확대에도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의 추정에 의하면, 양쪽 공장에서의 선반 생산은 1993년의 2천 5백대에서 향후 7천 5백대까지 증가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북러간 경제협력의 가장 유망한 지역은 바로 북한과 시베리아 및 러시아 극동지역과의 교역과 경제 교류이다. 이 지역은 현재 경제활동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 방향에 대한 북한측의 진지한 의도는 북한이 시베리아와 러시아 극동 도시에 이미 다수의 대외무역기구들을 개설했다는 사실에 의해서도 확인될 수 있다.

북러협력에 있어서 있어서 앞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분야는 북한 항구들(특히 구 소련의 지원으로 건설된 나진항)을 경유한 러시아 수출입품의 유통 문제이다. 많은 러시아 수출품(석탄, 석유화학제품, 철금속, 비료 등)에 있어서 이러한 경유항의 중요도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992~93년에는 이 항구가 인도와 호주로부터의 알루미늄 수입을 위해서도 사용되었다. 이러한 경유항의 활동 증가를 위해서는 항만세의 감면과 항만시설의 근대화 와 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일부 러시아 기업들은 이미 이러한 사업에 착수하여, 1992~93년 나진항의 개발에 5

백만 달러를 투자 하였다.

또 한가지 빠질 수 없는 것은 러시아의 기업인들이 나진-선봉 자유경제 지대의 건설에 참여

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현재 많은 외국 투자자들이 자유경제지대 건설 사업의 조건과 타당성을 조사하고 있다. 이 지대(약 621 km²에 해당)는 나진, 선봉, 청진 등 북한의 3대 항구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지역을 향후 대외무역의 창구로서 발전시킨다는 것이 북한의 계획이다. 북한 전문가들의 계산에 의하면, 이들 항구의 기반 시설을 재건하고 또 그 밖에 이 지역내 합작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제반 조건들을 갖추기 위해서는 약 42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다. 현재까지는 이 사업의 실현은 자금 부족과 북한 새 지도부에 대한 외국투자자들의 조심스러운 태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러간 투자협력은 에너지 분야에서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1992년 러시아측은 북한의 최대 에너지 발전소, 즉 동평양 화력발전소(20십만 KW)과 원자력 발전소(총 1,760 KW)의 건설을 중단하였다. 동평양 화력발전소의 경우 약 35% 정도의 장비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으며, 모든 건설 작업이 중지되었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 문제는 현재 타당성 조사만이 이루어진 상태로써 러시아 전문가들은

“
 또 한가지 가능한 미래 사업은 러시아, 남북한이 공동 참여하여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한반도를 관통하는 가스관을 건설하는 일이다. 가스관 건설 사업의 실현은 현재 남북한 관계의 경색과 북한의 경제적 문제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설부지에 대해 추천하기도 하였다. 이 분야에서의 협력 재개 문제는 최근 다시 북한측에 의해 제기되었는데, 이는 1994년 10월의 북미 제네바 합의의 틀

안에서 과거의 중수로를 경수로로 대체하겠다는 북한의 결정과 관련된 것이었다. 남한으로부터의 경수로 도입을 부척 꺼리고 있는 북한은 러시아를 포함한 다른 국가들로부터 경수로를 지원받겠다는 의사를 몇번 밝힌 적이 있다.

또 한가지 기대되는 것은 북한내 다자간 경제 개발 사업에 남북한과 러시아가 공동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게 되리라는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사업 중 가장 커다란 것은 1991년 UNDP에 의해 시작된 두만강 개발 사업이다.

UNDP의 계획에 의하면, 향후 15~20년 이내에 북한, 러시아, 중국, 일본, 남한, 그리고 몽고 등은 약 300억 달러를 투자하여 두만강 어귀와 근접 지역에 약 2만 km²에 달하는 거대한 무역, 산업 및 유통 센터를 건설하게 된다는 것이다. 러시아의 해양 지역 (Primorsky Krai)이 이 사업에 참여하기로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이 지역 당국은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으로, 이 지역 정부는 대규모의 해외 투자를 통해 북한 및 중국과 접하고 있는 이 지역의 남부 지방을 현대화하는 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Nakhodka에 자유경제지대를 건설하고 블라디보스톡 항구의 현대화에 노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아마도 그들은 두만강 유역에의 새로운 교역 및 산업 센터의 건설로 Nakhodka와 블라디보스톡 지역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1995년 5월 북경에서 개최된 두만강계획 운영위원회에서 이 사업의 주요 문안이 북한을 포함한 모든 참가자들에 의해 채택되었다.

또 한가지 가능한 미래 사업은 러시아, 남북한이 공동 참여하여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한반도를 관통하는 가스관을 건설하는 일이다. 가스관 건설 사업의 실현은 현재 남북한 관계의 경색과 북한의 경제적 문제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하나의 유망한 협력 분야는 남한기업에 의해 주도되는 북한내 사업에 러시아가 참여하는 것이다. 필자는 남한 기업인들이 과거 소련

에 의해 건설된 북한내 여러 생산시설(예를 들면, 청진의 제련소와 자동차 공장 등)을 현대화하여 활용하는 데에 관심을 보일 만하다고 생각한다. 러시아와 남한 기업들은 북한내 석유 화학과 경공업 분야 시설의 현대화와 사회간접 시설의 재구축에도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발표된 바로는, 러시아와 남한 기업은 이미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Prymorcky 지역의 Posiet에 농장 건설을 위한 합작 회사를 설립했다. 또한 이 곳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북한에 수출되어 북한 상품과 교환될 예정이다. 이러한 사업들의 미래는 결국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대단히 우려하고 있는 북한 당국의 태도 변화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결론

러시아와 북한간의 경제관계는 현재 기로에 서 있다. 비록 가장 어려운 시기는 지나갔지만, 양국관계의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낙관론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필자는 러시아와 북한 양국은 점차 무역과 경제 교류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와 북한 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부분의 국가들에게도 혜택을 주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민들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북러간 경제 협력이 결국 남북한 모두에게 득이 된다는 사실이다. **한**